

2026
신년
메시지

2026년을 맞이하여

총회장 장경태 목사 (후나바시교회)



재일대한기독교회 모든 교회의 교역자와 교우여러분,
새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
하신 은혜로 교회와 선교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때로는 지
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전15:58)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불
들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8회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온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마 9:37-38)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감소, 다문화 환경의 확장, 고독과 영적 공허함은 분명 도전이
지만, 주님은 이 상황을 새로운 추수의 기회로 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은 많으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새롭게 불들고자 합니
다.

첫째, 위로받는 교회에서 ‘위로하는 교회’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
지 않으십니다(사 42:3).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약함과 아픔을
품고 회복을 돋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
습니다.

둘째, ‘일꾼의 눈’을 가진 교회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마 9:36).
다음 세대, 다문화 가정, 고령자, 직장인, 언어와 문화의 벽 속
에서 외로움에 놓인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 이들을 향한 선교
의 문을 보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해 각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훈련하며,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
기를 소망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모든 교회와 교우여러분,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 총회는 모든 교회
를 격려하며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새 힘을 얻고,
성도들은 비전을 회복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추
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
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
신 새 역사의 문을 열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본기독교회와 선교협력위 개최 한국문학 번역가 斎藤真理子씨 맞아 강연회

2025년 12월 4일(목), CCJ 카시와기 교회에서 일본기독교회
(CCJ)와의 선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부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한국문학 번역가 사이토 마리
코씨가 「한국문학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현대 작가
들이 그려낸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양면에서 설명하였다. 사회
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강연
은 대면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대면 56명, 온
라인 62명이었다.

제2부 선교협력위원회가 열렸다. 먼저 부총회장 김명균목사의
인사와 기도가 있었고, 이어 양 교단의 보고, 질의 응답, 과제에 관
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양 교단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함께 고민해
야 할 선교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에는 CCJ 대
회 의장 나카이에 게이스케 목사의 폐회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2026년을 맞이하여/각지방회회장·전국여성회회장

관동지방회회장 <김신야 목사>



관동지방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회에 참석했을 때, 뜻있는 분들이 모여 과제를 정리한 결과를 폐회 예배 직전에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다른 지방회 분들과도 공유하고자 발표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를 물질적, 영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교역자 수 감소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회 임직위원회에서도 공유하고 이미 조사/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속에서 성령의 격려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지해 나가는 지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멈추지 않는 전쟁과 이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문제에 눈을 감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타인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부지방회회장 <이진용 목사>



중부지방회는、静岡県、長野県、愛知県、 그리고 岐阜県에 있는 8교회와 2전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부지방회에 속해 있는 각각의 교회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서로 돋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마음과 힘을 다해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막4:31). 작고 연약한 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씩이 난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나무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씩이 나지 않은 씨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성령님에 의해 이 땅에 뿌려진 존재라면, 우리 안에는 씩이 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각각의 교회의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보다 더 협력한다면, 일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질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의 길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대하는 중부지방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관서지방회회장 <김종권 목사>



2026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가중시키는 어두운 뉴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2025년도 관서지방회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2025년을 우리 모두 정말 잘 버텨 왔습니다.

2026년은 움직이는 신앙,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솔선하여 믿음의 모범을 보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Sola Fide(오직 믿음),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구호를 새삼 떠올리는 요즘입니다. 2026년 새 해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 모든 교회와 신도들 가정위에 주의 평안과 특별하신 은총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서부지방회회장 <한세일 목사>



현재 우리 서부지방회는 13교회, 2전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3개 교회와 2개 전도소에는 목사가 없다는 심각한 '무목(無牧)'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 지방회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 저는 서부지방회 전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큰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은 「무목 교회 등 재건 검토 워킹 그룹」으로, 구체적인 재건 계획을 세워 실행에 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초빙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목 교회의 자립과 지역에 따른 전도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각 교회와 전도소의 정보를 워킹그룹에서 나누고 활성화시킴으로 무목 교회·전도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문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방회 교회에 속한 각 교회 사이에 연대를 강화하여 「주님 안에서 형제인 지방회」를 지향하며 서로 세워가는 관계성을 쌓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서부지방회 뿐만 아니라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지방회가 직면하고 있는 무목 교회와 고령화 그리고 신앙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서부지방회와 각 지방회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서부지방회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희망차고 새롭게 기념할 만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서남지방회회장 <윤선박 목사>



2026년의 포부는 지방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개 교회와 전도소의 복음 선교에 함께합니다. 개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와 문제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수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원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직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하나는, 서남KCC와 연대하며 지방회의 역사를 배웁니다. 서남지방회(전신인 규슈지방회)는 1926년 오택관(吳澤寬)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전도에 주님께서 씨를 뿌려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올해로 100년이 됩니다. 지방회는 그 전도를 계승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선배들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지난해 학습회를 후쿠오카교회, 우베교회, 구마모토에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벳푸교회, 쓰시마전도소에서 개최합니다.

하나는, 일본기독교단 九州教区, 西中国教区(山口西分区)와 일본기독교회 九州中会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있습니다. 특히 규슈교구와의 공동행사인 「헤이트 스페치를 생각하는 공동집회」인 「모두 함께 (잠시) 모이자」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관계를 쌓아 주셨기에 이 공동행사가 탄생했습니다. 지방회는 위원회 활동에 감사하며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회의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여성회회장 <송복희 권사>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전국교회여성회 여러분 !

2026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실것은 감사하며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전국여성회의 회장으로서 2022년 제 63회 정기대회에서 선출되어 2026년 5월 말까지 임무를 담당합니다. 회장으로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 : 5)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가지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우리들을 길러주십니다. 접붙임 받은 자로서 주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또한 말씀에 단단히 결속되고, 언제 어떤 때 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켜 주실 것과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일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남지방회
발행

크리스마스 음악예배 개최 8교회가 균황 보고와 찬양을

12월14일(주) 저녁, 折尾교회(온라인 병용)에서 서남여성연합회 주최, 서남청년부 후원으로 크리스마스 음악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이호자집사(小倉)가 사회를 보고, 이해란목사(折尾)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 9 : 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서남연합성가대는 고문국장로(別府)가 지휘를 하여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드렸다. 2부 교류회는 윤선박목사(博多, 지방회장)의 사회로 참가한 8개 교회가 균황을 보고하고 찬양을 드렸다. 8개 교회 103명이 참가하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애찬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 임명기)



롯 결혼상담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마음을 다해 성혼까지 돌보겠습니다.

代表 崔貞淑(神戸東部教会名誉勲士、 경력 30년)

〒659-0012 芦屋市朝日ヶ丘町10-35-504

090-3429-9707

관
서
여
성
회

가을 一日 연수회 개최 지역 선교에 대해 강연회 열어

2025년 11월 15일(토)에 사카이교회에서 ‘가을 일일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수회는 2년에 한 번씩 교육부 주간으로 여성회원들이 모여 배움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며, 이번에는 ‘빛을 발하라! 주님이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2일에 난코 전도소와 합병하여 사카이 교회에 부임하신 김대현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35명의 참가로 열렸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임혜영 교육부장의 사회로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가 ‘잊혀진 자 (막 2: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2부에서는 강영자 사부부장의 사회로 ‘지역 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김대현 목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전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 후,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 협의회와 지역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룹 활동을 했다.

각 그룹에서 전도하는 교회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대현 목사의 마무리로 연수회를 마쳤다. 개인을 향한 전도만을 생각하기 쉬운 좁은 우리의 시야를 지역의 자원과 지역 복지와의 연결고리로까지 넓힐 수 있어, 지역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강점과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장소 준비 및 정성을 다해 맞이해준 사카이 교회 여성회 분들에게 감사한다.

(보고: 강지선)



특별기고

CCA 실행위원회 및 프로그램 참가 보고

— 아시아 교회의 여정과 미얀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

2025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실행위원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향후 CCA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협의의 자리였으며, 특히 2027년에 맞이하게 될 CCA 창립 70주년(플래티넘 주빌리)을 향한 준비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로 아시아 선교회의와 제11차 아시아 신학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행사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감사와 축하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2027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에 여러 대규모 행사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행위원회는 제16차 CCA 총회를 당초 예정되었던 2028년이 아니라 2029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행사의 준비와 실행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신임 총무 선출이다. 실행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PCK) 출신의 문정은목사를 차기 총무로 선출하였다. 문 목사는 현 총무인 매튜 조지 추나카라박사의 뒤를 이어, 2026년 6월 5일 CCA 본부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기 실행위원회는 2026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동일하게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될 것임도 확인되었다.

실행위원회 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에 관한 아시아 교회 지도자 회의”가 열렸으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는 “미얀마에서의 안전 보장, 정의로운 평화, 민주화를 위한 글로벌 옹호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CCA는 아시아 각지의 교회와 교단이 이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중언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장이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체현하는 만남이 있었다. 그것은 미얀마 출신의 한 젊은 신앙인과의 교제였다.

그녀는 자신이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미얀마에서 내전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그녀는 미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지만, 여름방학 때마다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태국을 경유하여 내륙을 통해 미얀마로 입국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반대했지

CCA 실행위원 정시온 목사

만, 아버지는 “지금의 미얀마를 똑바로 보고 오라”고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강한 압력 속에서, 함께 시민운동에 참여하던 친구가 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일을 털어놓았다. 지금도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를 염려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지금의 미얀마’는 언론 보도에서 제시되는 숫자나 통계가 아니다. 그곳에는 살아남기 위한 목소리가 있고, 기도가 있으며, 희생이 있고, 희망을 갈망하는 절박한 외침이 있다. 비무장 시민은 물론 신앙인, 교회, 지원 단체마저도 공격과 구금, 살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와 민족적 소수자들은 심각한 차별과 탄압 아래 놓여 있다. 더 나아가 소수민족, 종교적 소수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은 전쟁, 차별, 빙곤, 억압이라는 중첩된 고통을 떠안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도 전쟁 상태, 혹은 심각한 인도적·인권적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폭력과 차별, 억압, 배제, 박해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부정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감정을 강요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CCA가 내세워 온 ‘함께 살아가는 아시아’, ‘공동의 선교 과제’를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참가한 실행위원회와 각종 프로그램은, 향후 기념행사와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 동시에, 아시아의 현실, 특히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CCA의 여정이 앞으로도 아시아의 현실에 뿌리내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공동으로 찾아가는 길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CCA Executive Committee

Nov 19-21, 2025

浜松教会

김송자 명예장로 소천

오랫동안 하마마츠교회에서 봉사



2025년 11월 18일, 하마마츠교회 김송자명예장로가 소천하여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 94세)

故·김송자장로는 1931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1976년에 세례를 받고 2001년에 하마마츠교회에서 장로 장로를 받았으며 2005년에 명예장로로 추대되었다.

2026年度 宣教師・神学生研修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2026年2月15日（主日）17:00～2月20日（金）
- ・場 所：オンライン（ZOOM）
- ・履修課目：KCCJ神学・宣教理念、憲法・規則、在日同胞史、KCCJ歴史、日本教会史・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KCCJ牧会・礼拝・礼典・説教など、総会行政・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
- ・問い合わせ：志願や詳細は総会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
(金柄鎬080-4377-3927)

2026年外キ協公開集会

日 時● 1月22日（木）14時～20時30分／オンライン
主 題● 差別と排外主義に抗し、「共に生き、共に生かし合う」教会と社会

◇基調報告：佐藤信行さん「外キ協40年目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特別報告：韓国NCC「韓国教会と韓国社会の現在」
◇特別報告：石橋学さん（神奈川新聞記者）「排外主義の現場」「在日ミャンマー人の現在と難民・移民基金がめざすもの」

*申込⇒前日までにraik.kccj@gmail.comへ

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 2026年／第40回全国キリスト者集会

～排外主義にNO！ 共に生きる社会にYES！～

日時●2026年1月23日（金）18:30～20:45／対面とオンライン
会場●早稲田奉仕園リバティホール

<第一部>礼拝 ◇メッセージ：大嶋果織さん

<第二部>集会 ◇日本とともに生きる青年たちの証言

・メノイア（クルド人など移民の子ども支援）

・仮放免高校生奨学金プロジェクト

・永住許可有志の会（日本生まれの青年たち）

*オンライン参加⇒<https://forms.gle/r9wgstfsgnTi8axUA>へ